高 神 大 學 校
論 文 集 第 22 輯
1995. pp. 201~225

T. S. Eliot의 詩에 나타난 自我變形
Self Tranformation in the Poetry of T. S. Eliot

김 경 철*

목 차

1. 서 론
2. 自我속에 갇힌 Guido : The Love Song of j. Alfred Prufrock
3. 自我變形의 가능성 : The Waste Land
4. 自我脫皮의 몸부림 : Ash Wednesday
5. 自我의 죽음 : Ariel Poems
6. 여행의 종착지－神과 自我와의 靈交 : Four Quartets
7. 결 론

* 조교수(영어영문학과), 영미시전공

1. 서 론

1927년 T.S.Eliot는 자신의 정체성을 "文學에 있어서는 古典主義者, 政治에 있어서는 王黨派, 宗教에 있어서는 英國카톨릭 信者"라고 선언하였다. 이는 Eliot라는 한 個人의 인생 전체에 대한 유명한 선포라고 할 수 있다. 문학가로서 또 그에 못지 않은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그의 자기선언은 그를 이해하는 데 큰 길잡이가 되어왔다. 사실 그가 이 선언을 한 1927년을 정점으로 그의 삶과 詩 세계에는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물론 그 변화가 어느 한 시점을 중심으로 완전히 변경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시기를 기점으로 하여 그의 詩에는 명시적으로든 암시적으로든 상당한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본고에서 시적 주인공이 겪는 自我變形을 중심으로 하여 Eliot의 작품세계에 나타난 이런 詩的 變形을 구명하고자 한다.

Eliot는 자신의 산문을 통해서 詩는 詩人 건해의 필연적 반영으로 규정짓고 있으므로 필자는 詩人의 자기선언을 정점으로 그 전후에 상당한 詩的 變形이 있었음을 확신하고 이를 시적 주인공이 겪는 自我變形을 중심으로 고찰하여 이런 詩的 變形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며 이런 시적 주인공의 變形과 詩人 自身의 變形과의 상관관계를 추적하는데 본 논문의 목적이 있다.

2. 自我속에 갇힌 Guido : The Love Song of J. Alfred Prufrock

Stephen spender가 Eliot의 詩 발전 3단계중 첫째 단계로서 Prufrock계열의 初期詩에 등장하는 개인은 매우 제한된 외부환경 속에 갇혀 있으며 각 개인은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와 정신적으로 분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1]. 사실 이 分離 내지 疎外의 主題는 그의 全體 詩와 劇의 최종적인 主題[2]이며, Kristian Smidt의 지적처럼 그의 詩에 나타난 불완전한 남녀관계가 암시하는 내용[3]이기도 하다. Eliot의 全體 詩는 사실 "portraits of souls in various conditions"[4]에 대한 것으로서 初期詩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와 세계로부터 철저히 疎外된 채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물고 있다면 後期詩의 인물들은 初期詩의 沈潛의 상태에서 벗어나 "the still point of the turning world"(Four Quartets.B.N.11.136)로 향하는 중에 중요한 自我變形을 겪는 것을 볼 수 있다. Dante의 Divine Comedy의 구조와 비교할 때 Eliot의 詩는 어쩌면 "from the Inferno through the purgatory to the Paradise"[5]로 나아간 詩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사회와 세계로 부터 疎外되어 심한 自意識 속에 사로잡혀 있는 初期詩의 인물이 後期詩로 갈수록 閉鎖된 自意識에서 벗어나 새로운 自我로 變形되는 과정과 그 變形過程이 시사하는 의미를 究明하고자 한다.

1) Stephen Spender, *T.S.Eliot*(Massachusetts : The Colonial Press, Inc., 1976), pp.3－4.
2) Leonard Unger, *T.S.Eliot : Moments and Patterns*(Minneapolis : Th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66), p.13.
3) Kristian Smidt, *Poetry and Belief in the Work of T.S.Eliot*(London : Routledge and Kegan Paul, 1967), p.141.
4) George T.Wright, *The Poet in the Poem*(New York : Gordian Press, 1974), p.66.
5) Op. cit., p.67.

1917년에 발표된 'The Love Song of J.Alfred Prufrock'의 첫머리에서 결정의 순간에 내뱉는 Prufrock의 "Let us go then, you and I"(11.1)라는 독백은 불길한 저녁 풍경 "the sky like a patient etherised upon a table"(11.2～3)을 배경으로 곧장 Prufrock에게 있어서는 우주를 뒤흔드는 것과 같은 중요한 문제 "an overwhelming question"(ll.10)인 구애하는 문제로 나아간다. 그러나 "Let us go"에 나타나는 희미한 행동 가능성은 이제 初期詩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不毛의 이미지와 동사의 法및 시제의 변경 등으로 인해 Prufrock 특유의 망설임을 거쳐 내적 독백 "interior monologue"[6]으로 나아간다.

there will be time…
Time to turn back…
Do I dare
Disturb the universe ? …
And how should I begin ?
Shall I Say…(11.26～70)

Prufrock의 독백이 암시하는 이 행동가능성은 바로 이어지는 다음 聯에서 역전되어 좌절당한다.

I Should have been a pair of ragged claws
Scuttling across the floors of silent seas.(11.73～4)

바다게인지 바다가재인지도 규정할 수 없는 이 提喩[7]의 "claws"로 인해 이중으로 非人間化된 갑각류, 고요한 바다 밑바닥을 외로이 기어 다니는 非人間 갑각류의 외로운 모습이 Profrock의 意識이 그려내는 자신의 모습이다. Profrock의 내적독백에서 우리는 Prufrock의 自己 內部로의 逃避意志[8]를 엿보게 된다. 좌절된 의식세계가 그려낸 자신의 모습이 非人間 갑각류에 불과한 것을 안 Profrock의 내적독백은 미래 직설법 동사에서 가정법으로 변경되고 또한 假定의 세계가 實在化되었을 때의 무의미함을 자신의 의식으로 그리며 자기 내부로, 내부로 도피하고 있다.

Should I…
Have the strength to force the moment to its crisis ? …
And in short, I was afraid…
And would it have been worth it, after all(11.76～87)

행동의 가능성 문제가 영원히 부정되자 Prufrock는 이제 우주를 뒤흔들만한 대명제의 명상에서 완전히 도피하여 차와 흰 플란넬 바지, 자꾸만 벗겨지는 자신의 머리와 자신의 노쇠 또는 소화에 대한 염려등 의미없는 일상 생활만을 마음 속에 그리고 있다.

6) Leonard Unger, op.cit., p.20.
7) Synecdoche : 一部로서 全體를, 特殊로서 一般을 나타내는 수사학의 표현법으로써 때로 그 반대를 나타내기도 함. 예를들면 sail이 ship을, a creature가 a man을 뜻하는 따위임.
8) Elisabeth Schneider는 *T.S.Eliot : The Pattern in the Carpet*(Berkeley and Los Angeles, California : University of California Pross, 1975), p.25.에서 이 部分을 "the commonplace metaphor of retreating into or being drawn out of one's Shell"이라고 말하고 있다.

사실 애정이란 자기 같은 인간에게는 너무 과분한 命題[9]이며 자신이 그 애정의 매력을 인식하고 있기는 하나 그 애정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자기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 Prufrock는 인어들이 바다 안 쪽으로 안 쪽으로 사라져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I have seen them riding seaward on the waves.(11.126)

그래도 그는 여전히 고요한 자신의 바다 방안[10]에서 바다 처녀들과 함께 거니는 환상에 빠져 있으나 실제로 바다 처녀들 역시 환상에 불과하다.

We have lingered in the chambers of the sea
By sea－girls wreathed with seaweed red and brown(11.129～130)

외부로 부터 단절된 자기만의 세계에 침잠되어있는 Prufrock는 타인과의 실제적인 관계를 결코 堪耐할 수 없다.

… human voices wake us, and we drown.(11.131)

사실 이 詩 'The Love Song of J.Afred Prufrock'는 일련의 슬라이드 필름과도 같이 분리되어 있고 이 분리된 인상들이 나름의 단편적 효과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詩에서 느끼는 것은 "A heep of broken images"(The Waste Land.11.22)뿐이다. Eliot는 이 詩에서 이런 단편적 기교를 사용함으로써 詩의 主題가 결국 단편적인 것임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Prufrock의 정신은 논리에 맞는 일련의 사고를 할 수 없으며 우주를 공으로 압착하여 그것으로 세상이 놀랄만한 압도적인 질문을 할 수는 더욱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고 만다"the universe into a ball / To roll it towards some overwhelming question"(ll.92～3). 이 詩에 나오는 모든 배경들이 Profrock 자신의 의식이며 결국 Prufrock 자신이다.[11]. 따라서 우리가 시에서 느끼는 것은 "What it feels like… to be Prufrock"[12]이다.

"Let us go then, you and I"(11.1)라는 내적독백에서 의연한 행동을 취할 것 같았던 Prufrock의 의식은 심각한 자아분열로 인해 해체되고 만다. 마치 대화의 상대가 외부의 제 삼자인 것 같은 애매함이 있기는 하나 Prufrock의 상대는 자신의 또 다른 自我이며 이는 몹시도 고집불통인 "recalcitrant half"[13]이다. 따라서 결국 그의 행동의지는 좌절되고 만다. 심각한 자아분열 상태에 빠져있는 Prufrock의 의식은 계단을 내려가는 자신의 모습과 또한 계단 위에서 자신의 벗겨져 가는 머리를 응시하는 또 다른 자신의 모습으로 양분되기에 이른다. 심각하게 분열된 Prufrock의 자의식은 행동하려는 의지뿐만 아니라 지각능력까지 마비시킨다. 심지어 그의 정신은 논리에 맞는 일련의 사고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만다. 이제 우리는 Prufrock에게서 기계적이고 자동화된 存在의 모습[14]을 보게

9) George Williamson, *A Reader's Guide to T.S.Eliot*(New York : Noonday Press, 1975), p.66에서 Prufrock의 變歌는 實世界에서는 한번도 불려지지 않은 "the song of a being divided between passion and timidity"(p.66)라고 말하고 있다.
10) 바다의 이미지는 여기에서 자기 내부로 逃避하려는 Prufrock의 意識世界이다.
11) Leonard Unger, op.cit., p.20.
12) Elisabeth Schneider, op.cit., p.26.
13) Martin Scofield, *T.S.Eliot : The Poems*(Cambridge : The University of Cambridge, 1992), p.61.
14) Robert Langbaum, op.cit.., p.110.

된다.

Dante의 'Inferno'에서 채택한 epigraph는 이 詩의 기본이 되는 심각한 흐름을 잘 묘사해 주고 있다. Dante가 지옥의 8번째 단계에서 고통중에 신음하고 있는 Guido백작을 만났을 때 그는 Dante 역시 자기처럼 살아서는 지옥에서 나갈 수 없는 "소망없는 存在"[15]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털어 놓는다.

… as no one has ever returned alive from this gulf, if what I hear is true,
I can answer you with no fear of infamy. ('Epigraph')

Shakespeare의 劇을 들을 때 우리가 듣는 것은 Shakespeare가 아닌 극중인물의 목소리이지만 Browning의 극적독백을 들을 때 우리가 듣는 것은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詩人 Browning 자신의 목소리라고 Eliot는 지적했다. 그는 또 "詩의 출발점은 詩人 자신의 정서"[16]라고 규정짓고 Dante의 경우 Dante의 詩는 Dante 자신의 "a personal experience"[17]에 입각해서 쓰여진 詩라고 자신의 여러 산문에서 말했는데 이런 정의는 Eliot 자신의 詩에도 적용될 수 있는 말로서 Browning의 詩와 같이 독백형식으로 쓰여진 이 詩 'The Love Song of J.Alfred Prufrock'에서 Prufrock가 표현하는 것은 결국 詩人 자신의 정서이며 Prufrock는 어떤 의미에서는 詩人 Eliot 자신인 것이다. 지옥에 갇혀 아무 희망없는 Guido가 Dante에게 털어놓은 부끄러운 자신의 과거 이야기는 Prufrock란 가면[18]을 쓴 Guido와 같은 처지의 詩人이 황무지인들에게 털어놓는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 이야기였는지도 모른다[19].

이 詩에 나타나는 여러 강열한 이미지가 극단에 이른 Prufrock의 분열된 의식세계를 잘 묘사해 주고 있다. Prufrock는 핀에 꽂힌 채 벽 위에서 안이 밖으로 뒤집힌 채 고통속에 죽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응시한다.

The eyes that fix you in a formulated phrase,
And when I am formulated, sprawling on a pin,
When I am pinned and wriggling on the wall,
Then how should I begin
To spit out all the butt-ends of my days and ways ? (11.56～60)

자기 폭로의 이미지는 자신의 신경이 "in patterns on a screen"(11.108～9)에 투영되는 것을 직시하는 데서 나타나고 고뇌하는 분열된 自我의 극단적 이미지는 자신의 머리가 세례요한의 경우처럼 소반 위에 담겨져 들어오는 것 "I have seen my head (grown slightly bald) brought in upon a platter(11.80～1)을 보는 데서 강열하게 제시된다. 그리고 최후로 자신이 만일 여성에게 구애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지에 대해 생각할 때 자신의 모습은 Dante의 'Inferno'에서 채택했던 Guido와 같은 인물과 동일시된다.

… I am Lazarus, come from the dead,
Come back to tell you all, I shall tell you all(11.94－5)

15) Helen Gardner, *The Art of T.S.Eliot*(London : Faber and Faber Ltd.,1979), p.82.
16) George T.Wright, p.77.에서 再引用
17) T.S.Eliot, *Selected Essays*(London : Faber and Faber Ltd, 1976), P.273.
18) Scofield, p.18. 63.
19) F.O.Matthiessen, *The Achievement of T.S.Eliot : An Essay on the Nature of Poetry*(London : Oxford University, 1976), p.43.

이 부분에 이르러 구애의 대상이던 여인은 "she"에서 "one"으로 보편화되고 자신의 우유부단함을 비웃던 하인의 모습도 "the eternal Footman"(11.84)에서 보편화된다[20]. 이제 Prufrock가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삶 그 자체이며 이런 Prufrock의 모습에서 우리는 "the portrait of a man in Hell"[21]을 보게 된다.

Eliot가 "The whole of Shakespeare is one poem… united by one significant and developing personality"[22]라고 지적한 것은 Shakespeare에 대해서 보다 자신의 작품에 더 잘 적용된다. 그의 詩에 번번히 나타나는 이미지와 반복되는 관찰[23]들은 시인의 집약된 감수성에서 나왔으며 이런 집약된 감수성은 이들 "patterns in his carpet"(11.)을 통해서 자신이 작품을 통합시키려는 詩人意志의 소산이었다. 詩에 나타난 반복된 이미지의 상호 연관성 및 집약성이 詩의 내용을 한층 더 풍부하게 만들어 주고 있다. Eliot가 Shakespeare와 Dante에게 적용시켰던 이 one significant and developing personality에서 파생된 통합성이 또한 Eliot 자신의 詩 作品에 나타난 전체적인 구도였다.

Eliot의 初期詩에 있어서의 詩的 주인공의 自我 變形이란 主題를 통해서 Eliot의 初期詩와 後期詩는 하나의 완전한 형태속에서 서로 결합된다. Prufrock의 세계에서는 비록 變形이 좌절된 自我에서의 탈퇴 가능성과 애정을 통한 인간관계 회복의 강한 의지를 의미하는 것이긴 해도 變形은 불가능하다. 사랑이란 용어는 詩의 제목에서만 제시될 뿐 詩의 본문에서는 한번도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Prufrock가 갇혀 있는 지옥은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보인다.

3. 自我變形의 가능성 : The Waste Land

1922년에 출판된 유명한 詩 The Waste Land는 'The Love Song of J.Alfred Prufrock'와는 여러 면에서 매우 상이하다. 우선 詩에 나타나는 인물이 Prufrock처럼 한 개인이 아닌 수많은 동서고금, 여러 원천의 인물이며 詩의 전체적인 규모가 'The Love Song of J.Alfred Prufrock'의 그것보다 훨씬 방대해져서 마치 세계가 詩를 쓰는 것[24]같은 느낌이 든다.

詩가 詩人의 인생관을 반영한 것이라면[25] 1차 세계대전을 거친 후 Eliot가 본 유럽의 荒廢像은 결국 Eliot 자신의 압축된 감수성을 통해 표현된 The Waste Land의 荒廢像 바로 그것이었다. Eliot는 한 사람의 先知者로서 자신의 개인 경험을 통해 결국 자기 시대의 절망감을 토로하고 있다[26].

세계의 타락은 인간의 근원적 죄성으로 말미암은 필연적 결과이기에 이 세계의 타락상은 새로운 국가조직이나 어떤 사회적 정치적 방법의 변경이 아닌 부패 타락한 인간의 靈

20) Scofield, p.132.
21) Elisabeth Schneider, op. cit., p.26.
22) Elisabeth Schneider, "*Prufrock and After* : *The Theme of Change*," PMLA, Vol. 87(1972), p.115.에서 再引用
23) "It is impossible to say just what I mean"(11. 107) 등 詩人 자신이 관찰한 事項들이 그 의 詩에 자주 나타난다.
24) George T. Wright, op. cit., p.83.
25) Ibid.
26) Martin Scofield, op. cit.,p.134.

魂 變形으로만 치유될 수 있다. 이 詩의 제4절에 이르기까지 詩가 제시하는 명제는 생명이 이 지독한 쓰레기더미 "out of this strong rubbish"(11.20)에서 살아날 것인가를 묻는 물음이다. 詩人의 눈에는 현재의 歷史는 공허와 무질서의 거대한 파노라마 "the immense panorama of futility and anarchy which is contemporary history"[27]로 비쳤고 그의 눈에 비친 이 돌더미와 쓰레기같은 현대의 황폐한 세상에서 再生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현대의 荒廢像은 이 詩에서 가뭄과 황폐한 도시및 不毛의 江 특히 성적 타락상을 암시하는 반복되는 이미지들로써 제시되고 있다. Eliot는 이 詩에서 성적 타락상을 사회적 또는 정치적 문제로 제시하지 않고 개인 영혼 타락의 필연적 결과로 묘사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사회의 황폐상 특히 성적 타락[28]으로 인한 현대문명의 황폐상은 개인의 自我變形을 통해서만 회복 가능한 것이다. 피상적으로 볼 때는 이 詩가 "the climax of Eliot's 'infernal' vision"[29]이라고 한 Northrop Frye의 지적처럼 타락한 남녀관계로 인한 정신적 성적 타락 및 이로 인한 현대문명의 황폐상을 詩의 도처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못한 채 自己 內部로 깊이 도피하는 Prufrock보다 더 전진한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Eliot 자신의 말처럼 詩人의 모든 창작물은 작품 상호간 연관성이 있으며 각 개별작품은 전체작품과의 관계 속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Eliot의 初期詩에 나타나는 단편적 경험들이 後期詩로 갈수록 점차 발전되어 전체가 통일성을 이룬다는[30] Unger의 지적처럼 비록 The Waste Land가 모순을 다루는 詩[31]이기는 하지만 'The Love Song of J.Alfred Prufrock'에 나타나는 수많은 의식의 단상들이 The Waste Land에서는 무질서 속에서나마 다소 통합되어가는 느낌을 가지게 된다. 어쩌면 The Waste Land에 나타나는 시인의 최대 강점은 "an extreme power of condensation"[32]이었는지도 모른다. Eliot의 全體詩가 詩人의 견해를 반영한 것이라면 'The Love Song of J.Alfred Prufrock'와는 상이한 이 詩의 리듬과 형식, 이미지의 변화는 詩人이 경험한 自己理解의 심오한 變化 때문이다[33].

'The Love Song of J.Alfred Prufrock'의 마지막 부분에서 Prufrock는 몽상에 잠겨 있다가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 채 自我속에 영원히 갇혀 버리는 Guido와 같은 신세가 되어버리지만 이에 반해 The Waste Land의 등장 인물들은 "a human soul tormented by eternal problems"[34]들로서 'The Love Song of J.Alfred Prufrock'에서는 불가능했던 自己變形이 이 詩에서는 이런 불가능상태에서 벗어나 "prehaps"의 상태[35]로 발전한다.

'What the Thunder said'의 마지막 시행에서 우리는 이 詩의 전반부에 나타나는 죽음의 이미지 "I had not thought death had undone so many"(11.63)와는 다른 Dante의 Inferno를 거쳐 Purgatorio에 이른 시인의 모습[36]을 발견한다.

27) Elisabeth Schneider, (1975), p.62에서 再引用
28) Ibid., p.67.
29) Northrop Frye, *T.S.Eliot*(Edinburgh and London : Oliver and Boyd Ltd., 1968), p.64.
30) Leonard Unger, op.cit., pp.28－31.
31) Leonard Unger, op. cit., pp.28－31.
32) Helen Gardner, op. cit., p.101.
33) Ibid., p.99.
34) Kristian Smidt, op.cit., p.151.
35) Elisabeth Schneider, (1972), op.cit, p.1106
36) C.B.Cox, op.cit., p.318.

I sat upon the shore
Fishing, with the arid plain behind me
Shall I at least set my lands in order : ?
London Bridge is falling down falling down falling down
Poi s'ascose nel foco che gli affina(11.423－27)

The Waste Land의 마지막 부분인 이 곳에서 우리는 이 詩가 발표된 1922년에 이미 Eliot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기독교로 가까이 다가간 것을 보게 된다. 메마른 벌판을 뒤로 하고, 최소한 자신이 속한 땅에서 만이라도 질서를 회복시켜 볼 생각을 가지고 고기를 잡고 있는 詩人의 모습에서 우리는 현대의 모든 인본주의 사상을 버린 후 기독교의 필요성[37]을 절감하는 詩人의 모습을 본다. Matthiessen의 말처럼 Eliot의 詩는 初期詩부터 시작하여 그의 全體詩 主題는 信仰이 없는 人生의 空虛感이 그 主題라 할 수 있다[38]. 이제 詩人은 황폐한 현대의 불모상을 회복하기 위한 해답을 Fisher King에 관한 풍요의식에서 구하지 않고 갈릴리 해변의 St. Peter처럼 기독교 신앙에서 찾고 있다. 물론 그의 靈的 世界에의 渴求는 완성된 것이 아니라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39]. 개종을 하기까지 詩人의 심오한 정서는 서서히 표면으로 나타나 1927년 이후 세인의 주목을 끌게 되었다.

Eliot가 자기 나름의 지적 세계를 형성하기 까지에는 Irving Babbitt, T. E. Hulme, Maurras, Augustus, Anti－Rousseauism등과 자신의 Prufrock적 기질에서 영향을 받은 바 크다. Eliot가 재학할 당시 Harvard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었던 교수 중의 한 사람인 Irving Babbitt는 인간의 불완전한 本性은 종교가 없어도 개인의 양심과 "inner check"에 의한 new humanism을 통해서 교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Irving의 이 이론은 기독교 신앙이 없이도 사회 윤리와 과거의 미덕이 보존, 강화될 수 있다는 Matthew Arnold의 문화이상론의 발전된 형태이다. 1928년에 발표한 자신의 'The humanism of Irving Babbitt' 론에서 Eliot는 Babbitt의 이 반기독교적 사회이상론을 비난했고 그 다음 해인 1929년에 발표한 'Second Thoughts about Humanism' 에서는 또 다른 인본주의자인 Norman Foerster를 다음과 같이 신랄하게 비난했다.

> … if he thinks that religion depreciates science and art, I can only suppose that his religious training took place in the mountains of Tennessee.[40]

인본주의를 두번째 비난하는 이 글에서 Eliot는 Norman Foerster의 인본주의는 순수하지 못하며 인본주의의 이 비순수성이 "ultimate discredit"[41]이라고 지적하였다. Eliot 자신은 반인본주의자인 T.E. Hulme의 견해를 따르면서 Hulme의 원죄론을 그의 speculations에서 인용하고 있다.

37) Robert Langbaum, p.118.
38) F.O.Matthiessen. op. cit., p.99.
39) Grover Smith, *T.S.Eliot's Poetry and Plays : A Study in Sources and Meaning*(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4), p.98에서 "his quest for spiritual knowledge remains only inceptive and must still proceed, not through a mere formality of religion, but through inward conversion"이라고 했다.
40) T.S.Eliot, *Selected Essays, Ibid, p.484.*
41) *Op. cit., p.491.*

'I hold the religious conception of ultimate values to be right, the humanist wrong. From the nature of things, these categories are not inevitable, like the categories of time and space, but are *equally objective.* In speaking of religion, it is to this level of abstraction that I wish to refer, I have none of the feelings of *nostalgia,* the reverence for tradition, the desire to recapture the sentiment of Fra Angelico, which seems to animate most modern defenders of religion, All that seems to me to be both, what is important, is what nobody seems to realize －the dogmas like that of original Sin, which are the closest expression of the categories of the religious attitude. That man is in no sense perfect, but a wretched creature, who can yet apprehend perfection. It is not, them, that I put up with the dogma for the sake of the sentiment, but that I may possibly swallow the seniment for the sake of the dogma'[42]

이 글에 나타난 반인본주의적 견해는 종교적 신념이 아니고서는 인간의 사악한 본성은 결코 치유될 수 없다는 것이다. Eliot의 반인본주의적 견해는 이 시기에 나온 'Criterion' 지에서 Bertrand Russell에게 가한 그의 날카로운 비평과 1928년에 발표한 'For Lancelot Andrewes' 에서 한 Ramon Fernandez의 인본주의에 대한 비난의 글에서 잘 살펴볼 수 있다. 이 시기의 산문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詩人은 유럽문화의 발전에 기독교 신앙은 필수적이라고 규정짓고 있다.

It is quite irrelevant to conjecture the possible development of the European races without Christianiy[43]

산문에 나타난 이러한 기독교 신앙을 통한 사회발전 개념은 그의 詩에서는 개인의 지적, 영적 변화문제로 나타난다. 개종을 선언한 뒤 발표한 Eliot의 後期詩에서는 새로운 詩의 흐름과 새로운 양식이 나타나고 세계의 무질서에 속해있으며 이를 슬퍼하는 "the modern questing soul"[44]의 모습, 더 나아가서 "automata"[45]에 지나지 않는 初期詩 인물들의 모습에서 탈피한 神 앞에 선 단독자[46]의 모습을 본다.

後期詩로 갈수록 Eliot의 詩는 점점 더 종교적[47] 색채를 띄게 되고 初期詩보다 더 본질적이고 詩人의 自己告白的인 경향을 띄게 된다.

42) Op. cit., pp.490－91.
43) Op. cit., p.473
44) George T.Wright, op.cit., p.68. cit.,
45) Stephen Spender, op.cit., p.160.
46) 원래는 實存主義 哲學者인 Kierkegaard가 使用한 용어이나 筆者는 Stephen Spender가 Eliot의 詩發展 3段階中 마지막 段階라고 지적한 the individual alone with God를 이렇 게 表現했다.
47) Stephen Spender, op.cit., p.158.

4. 自我탈피의 몸부림 : Ash Wednesday

初期詩에서부터 계속 추구되어오던 自我變形의 주제는 Ash－Wednesday와 Ariel Poems에서는 詩的 表現[48]을 통해서 변형된 自我 내지는 변형과정에 있는 自我의 모습을 탐구하게 된다. 이제 이런 自己變形의 主題는 1927년 'Salutation'란 제하로 제일 먼저 출간[49]된 제3절에서 처음 제시되고 있다.

Lady, three white leopards sat under a juniper－tree
In the cool of the day, having fed to satiety
On my legs my heart my liver and that which had been
　　contained
In the hollow round of my skull. And God said
Shall these bones live? (11. 42－6)

Ash－Wednesday에서 가장 괴이한 환상적 분위기로 묘사되는 이 싯귀는 과거의 自我를 소멸시키기 위한 신앙인의 또 하나의 단계이다. St. John of the Cross의 신앙에 이르는 부정적 방법과 같이 過去의 自我가 소멸된 육신이 자신의 해체를 수용하고 더 나아가 성녀에게 찬양하고 있다. 이 싯귀는 마치 화자가 강팍했던 過去 自我가 소멸되어가는 모습을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응시하고 있는 것 같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 이 싯귀에 나타나는 전체적인 명료함과 환상적 분위기는 내용의 괴이함이라기 보다는 정적감 때문이다. 이 節에서는 이 詩 전체가 풍겨주는 갈등도 암시되어 있지 않고 또한 詩 전체에 나타나는 분요의 흔적도 없이 詩에 나타난 인물들은 자신들의 해체를 기뻐하며 성녀에게 노래를 부르고 있다.

Under a juniper－tree the bones sang, scattered and shining
We are glad to be scattered(11.89－90)

환상적 분위기가 이 시 전체에서 강하게 풍겨지므로 이 詩는 화자가 의식은 하나 실지로 경험하지 못한 평온에 대한 "an as－if, a vision"[50]에 대한 詩로 규정할 수 있다. 詩의 화자가 비록 自我해체의 기쁨을 체험하진 않았으나 완전한 自我해체를 위한 화자의 투쟁은 계속된다. 이보다 1년뒤에 발표된 제1절 첫 부분의 싯귀는 Guido Cavalcanti의 詩 첫 부분을 옮긴 것이다.

48) 改宗時까지의 初期詩에 나타난 antipoetical한 表現方法은 Eliot의 의도적 행위였고 後期 詩에 와서는 poetical해졌다. C.B.Cox는 Eliot의 初期詩에 나타난 contradiction 性向은 眞理의 相對性을 독자에게 認識시키기 위한 그의 고의적 행위였다고 진단하고 있다. (pp.311－19)

49) 이 詩가 처음 出刊된 1930년에 이미 여섯 節중 앞의 세 節이 別個의 詩로 세상에 나와 있었다. 참고로 첫 세 節의 出版年度와 揭載誌및 제목은 다음과 같다.
　Ⅰ節(1928년 봄. Commerce지. Perch io Non Spero)
　Ⅱ節(1927년 12월. Saturday Review of Literature誌. Salutation)
　Ⅲ節(1929년 가을. Commerce지. Som de L'Escalina')
　그리고 뒤의 4,5,6節은 1930년에 처음 全體詩의 一部로 出版되었다.

50) 詩의 題目은 Ballata, written in exile at Saranza이다.

Because I do not hope to turn again
Because I do not hope
Because I do not hope to turn (11.1－3)

原詩의 내용에 의하면 추방당한 詩人은 비판에 잠겨 죽음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詩人의 이 고백에는 실패와 체념이외에 "the spiritual act of turning to God"[51]의 의지가 있다. 詩의 첫 부분에서 거듭 강조된 "Because I do not hope"는 "Because I can not hope"로 그 의미가 강조되었다가 詩의 끝 부분에서는 "Although I do not hope"의 거듭 반복으로서 自我가 느끼는 최초의 세밀한 변화를 감지하게 된다. Eliot에게 있어서 고통과 시련 및 환멸은 참된 기독교 진리에 이르는 필연적 과정[52]이었고 그의 詩에 나타나는 세상으로부터의 隔離와 疎外는 어느 의미에서는 종교적 정화[53]의 한 단계이며 신앙에 이르기 위해서 추구해야 할 한 理想[54]이었다. Eliot의 견해에 따르면 인간의 의지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첫째 개인의 의지는 神의 의지에 합치됨으로써 자동적으로 소멸되어야 한다. "Teach us to care and not to care"(11.38)란 이 역설적 표현은 바로 이 사실을 제시하는 것이며 이것이 이 詩가 시작될 때 부터 끝날 때 까지 詩人이 기원하는 바였다. 그리고 이 기원은 이 詩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Paradiso' 3장에 나타난 "Our peace in His will"(11.214)이란 말에서 의미가 명백해진다. 그러나 개인의 의지가 완전히 해체되어 神의 의지와 일치하는 경우는 불가능하므로 기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또한 그의 견해로는 초자연적 은총에 의해 인간은 자기의 의지로 自我를 완전히 해체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自我는 순전히 의지의 힘으로써 절망이란 St. John of the Cross의 부정적 방법을 통해 변화하는 것이다. 詩의 첫 부분에서 암시된 실패와 좌절로 인한 절망을 통해 詩人이 도달한 곳은 평화와 기쁨의 실재적 경험세계라기 보다는 이러한 실재적 세계의 희미한 영상에 지나지 않는다.

전술한 바와 같이 後기詩로 갈수록 詩人의 자기 고백적 경향이 강하게 詩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데 이 詩 가운데 특히 제3절에서 이런 詩人의 영적 갈등이 현저하게 나타난다. 1619년 Ash Wednesday날 Lancelot Andrewes가 "Of Repentance"란 제하의 설교에서 사용한 이 "turn"은 詩人의 개종에는 필수적인 것이었는지 모른다. 무대는 중세기 어떤 탑의 어둠침침한 계단이고 한 인간이 어렵게 계단을 오르고 있다. 그는 계단 굽이에 이를 때마다 과거의 自我를 조금씩 남겨둔 채 한계단 한계단 위로 올라간다. 돌이켜 뒤를 보다가 그는 계단의 악마와 싸우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본다.

Struggling with the devil of the stairs who wears
The deceitful face of hope and of despair.(11.100－1)

51) B.C.Southam, *A Student's Guide to the Selected Poems of T.S.Eliot*(London : Faber and Faber Ltd, 1977), p.130.

52) Selected Essays의 'The "Pensees" of Pascal'에서 Eliot는 "It was also a despair which was a necessary prelude to, and dlement in, the joy of faith"라고 했고 'France Herbert Bradley'에서 "scepticism and disillusion are a useful equipment for religious understanding"(p.450)이라고 했다.

53) the Anglican Church에 改宗한 Eliot가 자신의 詩에 쓴 "purgation"에 해당하는 단어이다.

54) Leonard Unger, Ibid., p.18.

Eliot는 Gerontion이후 이 詩를 쓰기까지 약 10년동안 Donne과 Laforgue의 극적 대조 기법을 버리고 그가 현대작가중 "the most universal poet" 라고 칭찬한 Dante의 투명한 문체를 모방해왔다. 정신은 신에게 집중하고 속죄의 계단을 올라가는 중에 있는 그의 영혼은 육감적 미의 세계에 이끌리기를 원하지 않으나 그의 마음은 뉴 잉글랜드를 따라 바다로 바다로 날고 있다.

though I do not wish to wish these things,
From the wide window towards the granite shore
The white sails still fly seaward, seaward flying
Unbroken wings

And the lost heart stiffens and rejoices
In the lost lilac and the lost sea voices
And the weak spirit quickens to rebel
For the bent golden-rod and the lost sea smell
Quickens to recover
The cry of quail and the whirling plover
And the blind eye creates
The empty forms between the ivory gates
And smell renews the salt savor of the sandy earth(VI.11.7－19)

詩人이 회상하는 뉴잉글랜드의 다채로운 美에 대한 정확한 묘사는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神에 대한 명상에서 이탈할려는 詩人의 정서를 정확하게 노출시키고 있다[55]. 순간적으로나마 그는 Ash Wednesday날의 참회를 망각한 채 육체의 매력에 끌려 갈망과 상실이라는 인간의 영역으로 되돌아가고 있다[56]. Eliot는 자신이 즐겨 사용하는 "consciously concrete"와 "unconsciously general"라는 말로써 詩에는 그 詩가 마음에 직접 말하는 이상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말하고 있음이 분명하다[57]. Eliot가 자신의 이미지를 객관적 구조위에 설정함으로써 진술의 명확성과 제시의 물분명성을 보여주는 것은 세번째 詩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At the first turning of the second stair
I turned and saw below
The same shape twisted on the banister

55) Matthiessen. op. cit., p.64.
56) F.O.Matthiessen, p.63－65.
57) F.O.Matthiessen. op. cit., p.64－65에서 지적하기를 곧 Eliot는 "consciously concrete", "subconsciously concrete"라는 말로써 詩는 독자의 마음에 직접 말해줄 수 있는 이상의 것을 제시해야 한다고 믿었음이 틀림없다. 시적 의미가 독자의 다양성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시인이 "the specific and distinct"한 것에 촛점을 맞추어야 하는 의무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그는 확실한 의미라는 중심 "a solid core of meaning"에서 조명되지 않을 경우 제시 "suggestion"의 가치는 의심스럽다고 믿었다. 확실한 것에 대한 집중의 필요성은 정확히 Eliot가 반복해서 말한 완벽하고 구체적인 객관화 "complete, concrete objectification"를 통해 감정을 불러 일으키는 것은 예술에서 감정을 표현하는 유일의 정당한 방법이라고 하였다.

Under the vapor in the fetid air
Struggling with the devil of the stairs who wears
The deceitful face of hope and of despair(ll. 96－101)

희망과 절망의 표정을 함께 지닌 계단의 악마는 "the demon of doubt which is inseparable from the spirit of belief"[58]이며 이어서 세번째 계단에서 詩人은 멀리 펼쳐지는 미와 매력에 넘치는 세상을 본다.

At the first turning of the third stair
Was a slotted window bellied like the fig's fruit
And beyond the hawthorn blossom and a pasture scence
The broadbacked figure drest in blue and green
Enchanted the maytime with an anique flute.(11.107－11)

자기의 목적에는 상반되는 이 육감적인 美의 世界[59]에 마음을 가누지 못하던 화자는 이제 이런 美의 世界가 사라지면서 다시 "strength beyond hope and despair"(11.115)를 얻는다. 그러나 이 세번째 계단의 마지막 부분을 기어오르는 詩人에게서 우리는 자신의 무능을 절감하고 神의 뜻에 의지하여 말씀만 하시기를 간구[60]하는 詩人의 부분적 고백을 듣게 된다.

Lord, I am not worthy
Lord, I am not worthy
but speak the word only.(11. 117－19)

이어지는 제4절은 갈등의 암시도 없고 自我의 해체를 기뻐하며 성녀에게 노래하던 제2절의 사막과 동산으로 되돌아간다. 이제 이 곳에서 묘사되는 사막은 실제의 사막이 아닌 동산에서 품는 기억속의 사막으로만 언급된다.

비록 이 절에 나타나는 "lady"의 모습이 제2절에서 보다 더 애매하고 상징적이며 또한 "I"와 "We"등의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을지라도 이 詩에 나타나는 전원적 풍경과 詩의 이면에 제시되는 화자의 변화과정에서 이 詩의 분위기를 인식할 수 있다.

Who walked between the violet and the violet
Who walked between
The various ranks of varied green

58) *Selected Essays,* p.411.
59) Leonard Unger(p.57)는 "…a Slotted window… bellied like the fig's fruit"에서 無花果는 탐욕을, 흠파진 窓은 二重的인 性的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60) 마태복음 8：5－8과 누가복음 7：1－7에 나타나는 記事로 한 백부장이 하인의 중풍병을 고치기 위해 주님께 나아왔을때 주께서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고 하실 때에 "내 집에 들어 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下人이 낫겠삽나이다." 라고 말하는 대목이 있다.
"Lord, I am not worthy that thou shouldest come under my roof : but speak the word only, and my servant shall be healed."

Going in white and blue, in Mary's colour…
Here are the years that walk between, bearing
Away the fiddles and the flutes, restoring
One who moves in the time between sleep and waking…
The new years walk, restoring
Through a bright cloud of tears, the years, restoring
With a new verse the ancient rhyme. (11. 120－37)

이 장면에는 대담한 詩的 진보와 自我變形의 과정이 제시된다. 이전에 묘사되던 "lady"의 모습이 이 詩에서는 희미한 베일을 쓴 "who"(11.120)로 제시되고 이제 "the years"(11.131)로 되었다가 마침내 "the new years"(11. 135)로 제시되는 과정을 통해 실제적 변화가 自我에 이루어졌음을 알게 된다. 육감적 세계는 정화되고 "Whose flute is breathless"(11. 143) 사막은 일시적인 동산의 형태를 취한다.

그러나 Dante가 Garden of Eden에 들어갈 때 들은 새의 노래소리, 나무의 바람소리[61] 들리는 이 지복의 순간 "But the fountain sprang up and the bird sang down"(11. 144)은 잠시 뿐 영속되지 않는다. 詩人은 이미 이 동산에서의 지복의 순간을 잠시나마 경험함으로써 희망은 있으나 개인의 영혼은 여전히 추방상태 "And after this our exile"(11. 148)에 있고 이 절이 끝날 때 까지 "the Word"가 되지 못한 "word"만이 들리지도, 말해지지도 않은 채 남아 있다[62]. 이 "word"와 "the Word"의 교차사용에서 지적으로는 승인하였으나 아직 심정적으로는 완전히 믿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詩人 개인의 양심의 소리를 듣게되며 이 詩人의 양심의 소리를 통해 우리는 詩人의 간접적 신앙고백을 듣게된다. 詩人은 밤이나 낮이나 어둠속을 거니는 자에게는 적당한 처소가 없음을 알고 있으며

For those who walk in darkness
Both in the day time and in the night time
The right time and the right place are not here (11. 163－65)

또 神의 은총의 얼굴을 피하고 그 목소리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기쁨이 없음도 알고 있다.

No place of grace for those who avoid the face
No time to rejoice for those who walk among noise and
deny the voice (11. 166－67)

바로 이어지는 싯귀에서 지적으로는 기독교 신앙을 승인했으나 아직 심령으로는 완전히 神에게 의지하지 못하고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詩人의 모습[63]을 詩는 보여준다.

61) Divine Comedy의 'Purgatorio'편 28장
62) Elisabeth Schneider, *T.S.Eliot : The Pattern in the Carpet*(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5), p.122에서 "Its substance… is essential to the poem : it is an assertion of the truth of Christ as the Word, an assertion that it is the Reality"라고 지적한다.
63) *Selected Essays*에 "intellectual freedom is earlier and easier than complete spiritual freedom" 이라고 되어 있다. (p.491)

Will the veiled sister pray for
Those who walk in darkness, who chose thee and oppose
thee…
will the veiled sister pray
For children at the gate
Who will not go away and cannot pray :
Pray for those who chose and oppose(11. 168－75)

이 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거의 詩人 자신을 저주하는 듯한 말을 접하게 된다.

… pray for those
affirm before the world and deny between the rocks.(11. 178－80)

Eliot는 회의론과 자유주의, 세속주의와 인본주의등을 비난함으로써 세상 앞에서는 기독교 신앙을 긍정하였지만 바위들 사이에서는 아직도 이 신앙을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적인 신앙고백과 자신의 참된 신앙 사이에서 방황하는 詩人에게서 우리는 어느 정도 신앙인으로의 變形된 모습, 내지는 그러한 變形에의 意志를 다음 싯귀에서 찾아볼 수 있다.

In the last desert between the last blue rocks
The desert in the garden the garden in the desert
Of drouth(V . 11.33－35)

사막과 동산은 이 詩의 기본적 상반개념[64]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상징으로서 사막과 동산이 교차되는 가운데 詩人이 선 곳은 마지막 사막이며 이제 이 사막도 The Wast Land에 나타난 "Among the rock one cannot stop or think"(11. 346) 그 불모의 붉은 바위가 아닌 서늘하고 푸른 바위이며 이 바위는 다음 절에서는 보통의 바위로 나타난다. 이제 이런 自我의 變形 可能性은 다음에 오는 마지막 절에서 실제화된다.

비록 詩人이 과거의 생활로 돌아가기를 원하지는 않지만

Although I do not hope to turn again
Although I do not hope
Although I do not hope to turn
Wavering between the profit and the loss
In this brief transit where the dreams cross
The dreamcrossed twilight between brith and dying (11. 184－90)

그의 마음은 여전히 과거생활에 대한 향수로 가득차 있다. 어두운 탑 속에 갇혀 바깥의 아가위 나무와 Pan신을 내다보았던 "slotted window"(11. 108)는 이제 어두운 탑 속에서 自我와 치열한 투쟁을 거친 詩人에게는 화강암 해안쪽으로 난 "wide window"(11. 192)

64) George Williamson, op.cit., p.169.

로 變形되고 이 넓은 창을 통해서 詩人은 어린 시절 자신이 즐기던 Massachusetts 해안으로 나는 자신의 모습을 본다.

From the wide window towards the granite shore
The white sails still fly seaward, seaward flying
Unbroken wings (11. 192－94)

그는 흰 돛을 보고 또한 상실한 마음이 사랑하는 모든 것들, "lost lilac and the lost sea voices"(11.196)과 "lost sea smell"(11. 198)을 지각하며 그의 약한 정신은 상실된 바다 향기를 찾아서 반역하고 보지 못하는 눈은 상아문 사이에서 공허한 형상[65]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

And the weak spirit quickens to rebel
For the bent golden－rod and the lost sea smell
Quickens to recover
The cry of quail and the whirling plover
And the blind eye creates
The empty forms between the ivory gates
And smell renews the salt savour of the sandy earth. (11. 197－203)

승인과 거부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지금은 "the time of tension between dying and birth" (11. 204)이고 이 곳은 세 꿈[66]이 푸른 바위 틈에서 가로지르는 "the place of solitude"(11. 205)이긴 하나 이제 앞 절에서 보이던 어깨가 벌어진 木神 Pan과 계단을 오르던 詩人의 마음을 산란하게 했던 "brown hair"(11. 113)가 사라짐으로써 詩人의 기억이 더듬어내는 이 상실된 감각세계는 정화된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 날이며 신앙인들이 이 기간 중에 자기가 過去에 저지른 罪를 悔改하고 神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종교적 기념일인 Ash wednesday를 자신의 詩 제목으로 삼아 詩人은 자기 성찰과 悔改 이외에도 신앙인으로의 自我變形 과정을 이 詩에서 세밀히 그려 놓고 있다.[67].

5. 自我의 죽음 : Ariel Poems

Ash－Wednesday가 정신적 變形 過程에 대한 詩라면 이 詩와 같은 시기에 나온 Ariel Poems 역시 그러하다. Ariel Poems는 生과 死 즉 새로운 삶을 의미하는 化身에 대한 詩[68]로서 이 Ariel Poems에 속한 네 편의 詩들 중에서 여기서 검토할 두 편의 詩 'Journey of the Magi'와 'Marina'에서 특히 개인의 內的 變化에 대한 主題가 生과 死의 형태를 통해서 명료하게 제시된다. 이 두 편의 詩가 제시하는 것은 개인의 自我 變形은 그 變形이 일어나기 까지 그 變形 당사자에게 극심한 고통이 수반된다는 사실이다. 이 두 편의 詩에서 제시되는 이런 自我變形에 따르는 극심한 고통은 이전의 詩에서는 제시되지 않던 새로운 사실이다.

이 詩 'Journey of the Magi'에 나타나는 세미한 비성경적 내용들은 1622년 성탄절날 Lancelot Andrewes가 James I세 앞에서 행한 설교에서 크게 시사를 받았다. Eliot는 산문에서 밝힌 자신의 견해[69]대로 구체적 현실성과 실제적 상황을 이 詩에 부여하였다. 생동감있게 제시되는 이 詩의 첫 부분은 Lancelot Andrewes의 설교내용[70]을 거의 그대로 옮긴 것이다.

'A cold coming we had of it,
Just the worst time of the year
For a journey, and such a long journey :
The ways deep and the weather sharp,
The very dead of winter.' ('Journey of the Magi', 11. 1－5)

Andrewes가 이 부분의 설교를 하기 직전 여행의 어려움을 회상했던 것처럼 Eliot는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71]하는 여러 싯귀들을 사용하면서 여행의 어려움을 제시하고 있다. 힘든 여행의 마지막에 그들이 발견한 인식의 순간은 만족스럽다는 말로서 거의 詩의 이면에 숨겨져 있다.

… We continued
And arrived at evening, not a moment too soon
Finding the place : it was (you may say) satisfactory. (11. 29－31)

"death－in－life"[72] 상태로 생존하다가 永遠한 眞理를 체험한 그는 이방인 사이에서 그들과 다른 변화된 存在로 계속 살아가는 것은 죽는 것보다 더 힘이 드는 일인 것을 절감한다. 따라서 그는 과거 自我의 完全 否定을 의미[73]하는 또 한번의 죽음을 갈망하고 있다.

65) Elisabeth Schneider(1974)는 象牙塔사이의 空虛한 形象을 "aspirations of the old youthful life of reverie"이라고 규정하고 있다.(p.125)
66) Grover Smith는 이 세 꿈이 "the sexual, the spiritual, and the artistic"한 理想을 가르킨 다고 지적했다(p.122).
67) Ash－Wednesday의 宗教的 意味를 잘 검토할 때 그 意味는 Unger(op. cit., p. 120)의 말 처럼 "a state of mind, a state of the soul"이며 Eliot는 이 개인의 精神變形過程을 이 詩 에서 다루고 있다.
68) Stephen Spender, op.cit., p.137.
69) *Selected Essays*에서 그는 Lancelot Anrewes의 說教體의 장점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그 의 强點을 자기 詩에 적용하고 있다 : "Before extracting all the spiritual meaning of a text, Andrewes forces a concrete presence upon us."
70) "A cold coming they had of it at this time of year, just he worst time of year to take a Journey, and especially a long journey. in. The ways deep, the weather sharp, the days, short, the sun furthest off, in solstitio brumali, the very dead of winter."
71) 이 詩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誕生과 苦難을 具體的으로 지시하는 단어들 "this Birth", "like Death" 뿐만 아니라 암시적으로 고난을 상징하는 싯귀들이 많이 내포되어 있다. "three trees on the low sky"(11.24)와 "six hands… dicing for pieces of silver"(11.27)등 이 그것이다. George Williamson은 이 詩에는 이런 고난의 상징들이 詩 全體에 퍼져 있다고 말한다.(p.164)
72) Grover Smith, op.cit., p.122.
73) Ibid.

There was a Birth, certainly,
We had evidence and no doubt. I had seen birth and death,
But had thought they were different ; this Birth was
Hard and bitter agony for us, like Death, our death.
We returned to our places, these Kingdoms,
But no longer at ease here, in the old dispensation,
With an alien people clutching their gods.
I should be glad of another death. (11. 36－43)

Eliot는 이 詩에서 自我變形의 주제를 서술하기 위해 生과 死란 가장 보편적이고 극단적 형태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사실 극심한 고통과 시련은 변화에 이르는 한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견해는 'The Love Song of J.Alfred Prufrock'에서는 무덤에서 나온 나사로의 모습에서 "To say : I am Lazarus, come from the dead"(11. 94) 희미하게 제시되고 The Waste Land 의 "April is the cruelest month"(11.1)란 개념에서도 부분적으로 제시된다. 이 詩 'Journey of the Magi'에서는 한 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고난을 통해서, 다른 한 편으로는 새로운 自我로 變形시켜주는 자신들의 죽음이란 상징을 통해서 自我變形에 따르는 극한 고통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 Eliot는 이 詩에서 명료한 詩적 표현을 통해 이 詩의 중심적 주제인 "the continuing agony of spiritual change"[74]를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Marina' 역시 주제면에서 'Journey of the Magi'와 관련이 있다. 그러나 'Journey of the Magi'가 동방박사 가운데 한 사람이 자신의 목소리로 자기 이야기를 서술하는 독백형식이라면 'Marina'는 내적독백 형태로 된 환상詩이다. 自我變形에 관련된 이 詩의 주제는 Elisabeth Schneider가 다음과 같이 잘 지적해 주고 있다.

> It is the anatomy of the moment of change, a moment of oscillation, alternating retreat and advance toward irrevocable choice between present death and longed－for yet half－dreaded life.[75]

Shakespear극 'Pericles'의 父王 Pericles역을 하는 이 詩의 아버지는 현실적 죽음과 동경하던 再生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데 이 詩는 이 동요와 변화의 순간을 분석한 것이다. 이 詩에 나타나는 대부분의 상징과 중요한 싯귀들은 재생한 딸을 인정할 것인지 부정할 것인지 망설이는 아버지의 감정의 동요를 잘 묘사해 주고 있다. 이 긍정과 부정 사이의 감정교체는 과거의 죽은 自我를 상징하는 배와 새로운 靈魂인 Marina 사이에서 계속된다.

Bowsprit cracked with ice and paint cracked with heat
I made this, I have forgotten
And remember.
The rigging weak and the canvas rotten…

74) Elisabeth Schneider, op. cit., p.124.
75) Ibid.

Made this unknowing, half conscious, unknown, my own.
The garboard strake leaks, the seams need caulking. (11. 22－28)

"얼음으로 금 간 斜檣"란 배와 이어서 "내가 이것을 만든" 딸로, 또 "약한 索具, 썩은 돛폭"의 배와 이어서 "모르고서 만든 내 자신의 것"의 딸로, 또 "龍骨翼板은 물이 새고"의 배와 이어서 환상의 化身[76]인 딸 Marina의 모습이 반복 교체된다. 그러나 이어지는 마지막 싯귀

This form, this face, this life
Living to live in a world of time beyond time ; let me
Resign my life for this life, my speech for that unspoken,
The awakened, lips parted, the hope, the new ships.(11. 29－32)

에서 再生한 딸의 存在가 인식되고 승인되며 개인의 自我變形은 완성된다. 썩은 돛폭을 가진 과거의 自我는 "the new ships"속으로 變形된다.

6. 여행의 종착지－神과 自我의 靈交 : Four Quartets

철학적 명상詩 Four Quartets는 짧은 철학적 명제를 제시한 후 이어서 곧 바로 詩人이 본 환상을 언급한다.

In my beginning is my end. Now the light falls
across the open field, leaving the deep lane
Shuttered with branches, dark in the afternoon,
Where you lean against a bank while a van passes,
And the deep lane insists on the direction
Into the village, in the electric heat
Hypnotised. In a warm haze the sultry light
Is absorbed, not refracted, by grey stone.
The dahlias sleep in the empty silence.
Wait for the early owl.
In that open field
If you do not come too close, If you do not come
too close,
On a summer midnight, you can hear the music
Of the weak pipe and the little drum
And see them dancing around the bonfire
The association of man and woman

76) Grover Smith, op.cit., p.131.

In daunsinge, signifying matrimonie—
A dignified and commodiois sacrament.
Two and two, necessarye conjunction,
Holding eche other by the hand or the arm
Whichte betokeneth concorde. Round and round the fire
Leaping through the flames, or joined in circles,
Rustically solemn or in rustic laughter…(ll. 14—35)

이 부분은 낭만파 詩人들인 Wordsworth나 Coleridge등의 詩 형식처럼 외부의 사물에 대한 묘사가 詩人의 내면 세계인 명상으로 인도하고 있다. George Bornstein의 말 처럼 詩의 화자는 이로 말미암은 내적 경험을 통하여 획득한 새로운 인지력을 가지고 외부 사물을 관망하게 된다. 그러나 Eliot는 자연을 지혜의 통로로 또한 자연이 더 이상 개인과 분리된 客體가 아니라 개인과 교감을 전수하는 實體로 파악하고 있는 낭만파 詩人들과는 달리 그에게 있어서 환상은 결국 "Dung and death"(ll.46)로 평가절하된다. Eliot는 대부분의 詩人과는 상이한 용어로 환상을 묘사하고 있다. 'East Coker'의 첫 부분은 다음과 같이 전도서적인 문장으로 인간이 처한 보편 상황을 기술하고 있다.

The time of the seasons and the constellations
The time of milking and the time of harvest
The time of the coupling of man and woman
And that of beasts. Feet rising and falling.
Eating and drinking. Dung and death(ll.42—46)

그러나 인간의 보편 상황에 대한 묘사 이후 이 詩는 곧장 시간적 공간적으로 완전히 별개의 구체적인 환상을 제시한다.

Now the light falls
Across the open field

여기에서 화자는 自我확인을 포기하고 자신과 자연을 구분하지 않는다. 이제 여기서 주체와 객체는 완전 융합되어 나타난다. 화자의 인지 능력이 이제 자연에게로 전이된다. 깊은 오솔길 "deep lane"이 마을 쪽 방향을 자신의 의지로 주장하고 "insist"있다. 수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규정되지 않은 "hypnotised"(ll.20)는 화자의 독자적인 의식 활동의 잠정적 포기를 제시하고 있다. 일찍 나온 올빼미를 기다리는 "Waiting for the early owl"은 인간적 요소와 자연적 요소의 혼합을 강조하고 있다[77]. 긴 오솔길이 방향을 고집하는 것 처럼 아래 "down"가 지시를 하고 "points" 또 다른 한 날이 의도적으로 열기와 침묵을 준비하고 있다 "prapares". 최종적 자아 확대 내지는 개체화의 반명제[78]는 이 싯귀의 끝 부분에 나타난다 : "I am here / Or there, or elsewhere." Eliot에게 있어서 自我의 분산은 그를 그가 본 자연적 환상의 순수함과 합일시키고 있다.

77) David Spurr, *Conflicts in Consciousness : T.S.Eliot's Poetry & Criticism* (Chicago : University of Illinois Press,1984), p.90.
78) Ibid.

인간과 자연의 합일이외에도 이 싯귀는 공간 이미저리에서도 'Burnt Norton'과 일치한다. "the deep lane / Shuttered with branches, dark in the afternoon"(ll.)은 Eliot의 상상력이 부단히 추구하는 폐쇄속으로의 하강운동을 제시하고 있다. 확 트인 개활지의 둘레나 모닥불을 중심으로 돌고도는 춤은 "heart of light"를 정점으로 한 일련의 동심원적 원운동을 형성해주고 있다. 'Ash—Wednesday'에 나오는 옛날 잔치처럼 춤 그것도 결국 유한한 성적 이미지에 불과한 것으로서 더 거대한 차원의 질서아래 붕괴되고 만다.

The time of the seasons and the constellations
The time of milking and the time of harvest
The time of the coupling of man and woman
And that of beasts. Feet rising and falling.
Eating and drinking. Dung and death(ll. 42—46)

時間 世界에 대한 詩人의 거부내지 환멸은 자연계를 매개로 하여 체험한 그의 환상에 대한 거부로 이어진다. 시간세계에 대한 환멸로 인해 詩人의 언어는 이제 구체화에서 보편화로 자연 묘사에서 리듬에 맡춘 반복으로 전이되고 이런 리듬에 맡춘 반복은 점점 짧은 어휘 단위로 나아가 결국에는 가장 단축된 3음절로 변형된다 : "Dung and death"(ll. 46). Eliot의 자의식은 그의 환상적 경험 자체의 가치를 부인하고 여기에 종교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East Coker에서 詩人은 자기에게 익숙한 혐오스런 이 세상사의 일들을 기술하고 있다.

The captains, merchant bankers, eminent men of letters,
The generous patrons of art, the statemen and
the rulers,
Distinguished civil servants, chairmen of many
committees(ll.103—5)

이제 詩는 혐오스런 세상사에서 "darkness of God"에 대한 일련의 비유로 물러간다. 詩는 이제 St. John of the Cross나 Dionysius등의 기독교 신비주의자들이 추구하던 부정의 길 via negativa의 길을 따르고 있으나 그의 낭만적 환상은 詩人의 영혼이 神을 인지했음을 나타내는 은유를 피력한다.

So the darkness shall be the light, and the
stillness the dancing.
Whisper of running streams, and winter lighting.
The wind thyme unseen and the wild strawberry,
The laughter in the garden, echoed ecstasy
Not lost, but requiring, pointing to the agony
Of death and birth(ll.128—33)

Eliot는 도덕적 명령어를 자신의 환상에 첨부함으로써 낭만파 선배 詩人들이나 현대의 詩人들과 결별을 선언한다[79]. David Spurr는 Four Quartets의 특징으로서 이런 도덕적

명령이 환상 자체에서 발생하지 않으며 Eliot는 자신의 詩에서 반복적으로 환상과 교리를 연결시키고 있음을 지적한다[80].

Eliot는 Lazarus의 예언적 목소리 "come from the dead / Come back to tell you all"(ll.101)를 교리적 의미로 착색시킨다.

Something I have said before. I shall say it again.
Shall I say it again? In order to arrive there...(ll.134－36)

詩人이 본 환상의 도덕적 의미는 곧 이은 병원의 이미지를 통해 구체적으로 부각된다. 그것은 이 병원의 이미지에서 제시되는 기독교 진리가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궁극적 원리이기 때문이다.

The wounded surgeon plies the steel
That questions the distempered part;
Beneath the bleeding hands we feel
The sharp compassion of the healer's art
Resolving the enigma of the fever chart
Our only health is the disease…
And that, to be restored, our sickness must grow worse.

The whole earth is our hospital
Endowed by the ruined millionaire,
Wherein, if we do well, we shall
Die of the absolute paternal care
That will not leave us, but prevents us everywhere(ll.147－51)

유한한 存在의 無秩序를 調和와 秩序의 세계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독교의 眞理밖에 없다. Eliot가 "인간에 대한 신의 길을 옹호"[81]하기 위해 습작했다는 이 詩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흘리는 외과의사"[82]로서 "아담의 저주 가운데" 빠져있는 황무지인들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의 "유일한 치유"는 이 세상이 "병원"이 되고 우리는 피흘리신 그 분의 환자가 되어 그 분의 "피흘리신 손" 아래서 죽는 방법밖에 없다. 우리는 그분의 연민의 손 아래서 죽음으로 치유될 수 있다.

Ash－Wednesday와 'Journey of the Magi'에 나타난 自我變形의 가능성 내지는 부분적 自我變形이 수 없이 반복되는 갈등과 좌절, 심지어는 고통의 극심한 형태인 죽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Four Quartets에서는 이전 詩에 보이던 이런 갈등과 고통이 神의 은총으로 대부분 사라지고 완전한 自我變形이 이루어진 자가 느끼는 조화와 평정의 세계가 묘사되어 있다. 새로운 自我로 變形된 개인이 느끼는 이런 평정의 세계는 初期詩에 나타나던 극한 모순과 애매성이 사라진 詩의 전체적인 분위기에서도 알 수 있다.

79) Ibid., p.92.
80) Ibid.
81) Gweorge Williamson, op. cit., p.297.
82) Ibid.

'The Love Song of J.Alfred Prufrock'에서부터 詩의 중심적 주제로 나타나던 개인의 自我變形은 이 詩에서는 여행의 이미지에서 보편화된다.

'Fare forward, you who think that y are voyaging;
You are not those who saw the harbour
Receding, or those who will disembark.('The Dry Salvages,' 11. 148－50)

여기에 제시되는 여행의 이미지는 自我變形이란 주제와의 관련성 속에서 명백히 파악될 수 있다. "unredeemed human nature"를 상징[83]하는 "old men"은 탐험가여야 한다.

Old men ought to be explorers
Here or there does not matter
We must be still and still woving
Into another intersity
For a further union, a deeper communion
Through the dark cold and the empty desolation('East Coker.' 11. 202－7)

모든 늙은이가 탐험가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神과의 더 깊은 결합, 더 깊은 靈交에 들어가기 위해서이다. Eliot의 전체시의 주제를 "quest"[84]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이 탐험의 이미지는 The Wast Land에서는 상실한 것을 찾는 등장 인물들의 모습에서 분명히 제시되었고 'Journey of the Magi'에서는 동방박사들의 자신들의 죽음을 전제한 여행의 이미지에서 또한 명백히 나타났다. 이전 詩에서 수 없이 제시되던 이 탐험의 최종 목적지는 이제 풍요 신화의 Perilous Chapel이나, The waste Land의 "the empty chapel"(11.388)이 아닌 "a secluded chapel"('Little Gidding.' 11.236)이다. Four Quartets의 탐험가가 도달한 이 곳에서 비로소 외부와 단절된 인간의 疎外가 해소[85]되며 이 예배당에서 비로소 "freedom from the self"[86]가 이루어진다. 개인이 過去自我로 부터 해방되는 이곳은 다름 아닌 우리가 처음 탐험을 시작한 그곳이다.

We shall not cease from exploration
And the end of all our exploring
Will be to arrive where we started
And know the place for the first time.('Little Gidding' 11. 239－42)

우리가 처음 탐험을 시작한 곳은 'Brunt Norton'의 그 "rose－garden"(11.14)이다. 초기시에서 희미하게 제시되던 동산의 이미지가 선명하게 변형된 이 "rose－garen"에서의 순간은 궁극적 실재를 경험하는 순간[87]이며 과거의 自我에서 벗어나 새로운 自我로 變形되는 극적 순간이기도 하다. 이 "rose－garden"에서 비로소 變形된 自我는 神과의 靈交의 순간을 체험한다.

83) Peter Milward, *A Commentary on T.S.Eliot's Four Quartets*(Tokyo : Hokuseido Press, 1968), p.58.
84) Stephen Spender, op. cit., p.121.
85) Kristian Smidt, op. cit., pp.208－9.
86) Ibid.
87) Ibid., p.205.

7. 결　　론

T.S.Eliot의 詩에 있어서 自我變形의 主題는 우리가 그의 詩에 접근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길잡이가 된다. 그의 初期詩에서는 외부세계와 단절, 분리되어 있던 인물이 後期詩에서는 이런 폐쇄된 자의식 세계에서 탈피하여 더 나은 自我로 변형되는 自我變形過程을 검토함으로써 詩的 變形과 詩人 自身의 變形을 상호관련성있게 구명하였다. 詩의 제목과는 달리 삶 그 자체를 직면하지 못한 채 자신의 의식세계에서 방황하는 Prufrock의 모습에서 우리는 자기내부로의 강한 도피의지를 보게된다. 이런 자기내부로의 도피의지는 점점 심화되어 그는 타인과의 실제적인 관계를 결코 감내하지 못한다. 이제 그의 처지는 Dante의 'Inferno'에 나타나는 지옥에 갇힌 자의 모습이며 한 편으로는 1915년부터 The Waste Land가 출판된 1922년 사이 정신적 육체적 파국상태에 처해 있었던 詩人의 모습이기도 하다.

이런 개인 영혼의 황폐상은 The Waste Land에서는 현대문명사회의 황폐상으로 나타난다. 사실 문명의 荒廢像은 個人 靈魂의 근원적 죄성으로 인한 필연적 결과이기에 이제 이런 황폐상에서 오늘의 현대문명을 구제하는 길은 個人靈魂의 개조로만 가능하다. Eliot는 인본주의를 비난하고 기독교는 유럽문화 발전에 필수적이라고 지적하였다.

개종후에 발표한 詩들은 점점 종교적인 색채를 띄게 되며 특히 Ash Wednesday에서는 詩人의 자기고백적인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詩에 나타난 話者의 肉感世界와 信仰世界 사이의 彷徨은 결국 공적으로는 기독교를 승인하였으나 심령으로는 회의하고 있는 詩人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었다. 이 詩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는 수 없는 좌절과 갈등을 거친 후 신앙인으로의 부분적인 自己變形을 한 詩人의 모습을 보게 된다.

Ash－Wednesday에서 自我變形에 이르기 위한 필연적 조건으로 제시되던 좌절과 갈등은 이 'Journey of the Magi'와 'Marina'에서는 生과 死란 극단적 형태로 심화된다. 완전한 自我變形에 이르기 위한 필수적 조건인 고난은 'Journey of the Magi'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배경으로 한 여행의 이미지와 death－wish의 형태로 나타나고 'Marina'에서는 현실적 죽음을 통한 재생의 형태로 나타난다. 죽었다가 재생한 딸 Marina를 상징하는 "new ship"속에서 이제 過去의 自我는 새로운 自我로 완전히 變形된다.

詩的 自我變形을 추구하는 詩人에게 있어서 자연과 개인과의 거리는 철저히 압축되어 둘 사이의 거리는 서로 불리불가능한 상태에까지 이른다. 그러나 Eliot의 환상세계에서 자연계는 무질서한 존재로 제시되고 이런 자연세계의 무질서를 치유하는 힘은 그 자체에서 나오지 않는다. Eliot의 시세계에서는 환상세계에서 교리적 목소리가 두드러지는 데 이런 유한한 무질서의 자연계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은 기독교의 그 말씀 "The Word"뿐이다. 황무지에서 들려지지않던 이 말씀은 이제 시인의 여행 종착지에서 나타나는 데 여기서 그 말씀은 오늘의 병든 세상을 치유하는 상처입은 외과의의 모습으로 구체화된다.

'The Love Song of J.Alfred Purfrock'에서 부터 시작된 이 自我變形의 主題가 결국 The Wast Land와 'Journey of the Magi'의 여행의 이미지를 통해서 도달한 곳은 Four Quartets의 "Rose－Garden"이며 그 곳은 우리가 여행을 시작했던 바로 그 곳으로서 이 곳에서 비로소 詩人의 過去 自我는 새로운 自我로 완전히 變形되고 비로소 詩人은 神과의 靈交의 순간을 체험하게 된다.

참 고 문 헌

Cox, C.B. "*T.S.Eliot, at the Cross-Roads*", Critical Quarterly, Vol.12. 1970

Eliot, T.S. *The Complete Poems and Plays 1909－1950.* New york : Harcourt, Brace & World., Inc 1971

_____. *Selected Essays.* London : Faber and Faber Ltd., 1976.

Gardner, Helen. *The Art of T.S.Eliot.* London : Faber and Faber Ltd., 1979.

Frye, Northrop. *T.S. Eliot.* Edinburgh and London : Oliver and Boyd Ltd., 1968.

Litz, A. Walton. *Eliot in His Time.* 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1974.

Matthiessen, F.O. *The Achievement of T.S.Eliot : An Essay on the Nature of Poetry.* London : Oxford Unicersity Press, 1976.

Schneider, Elisabeth. *T.S.Eliot : The Pattern in the Carpet.* 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5.

Scofield, Martin. *T.S.Eliot—the poems.*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1992.

Smidt, Kristian. *Poetry and Belief in the Work of T.S.Eliot.* London : Routledge and Kegan Paul, 1967.

Smith, Grover. *T.S.Eliot's Poetry and Plays : A Study in Sources and Meaning.*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4.

Southam, B.C. *A Student's Guide to the Selected Poems of T.S.Eliot.* London : Faber and Faber Ltd., 1977.

Spender, Stephen. *T.S.Eliot.* Massachusetts : The Colonial Press, Inc., 1976.

Spurr, David. *Conflicts in consciousness : T.S.Eliot's Poetry & Criticism. Chicago* :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84.

Unger, Leonard. *T.S.Eliot : Moments and Patterns.* Minneapolis : Th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66.

Williamson, George. *A Reader's Guide to T.S.Eliot.* New York : Noonday Press, 1975.

Wright, George T. *The Poet in the Poem.* New York : Gordian Press, 1974.